

Inductive
Understanding
of
Literary
Techniques

※ 교재 안내 ※

Inductive Understanding이란?

: 수능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평가원에서 출제한 국어영역(구 언어영역) 기출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문학 개념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자는 평가원에서 적절하다고 제시한 선지만 모두 모아서 개념별로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정답 선지만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닌 선지만을 모두 추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선지에 얽힌 제시문(작품)과 매칭하여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개념 학습 방법을 Inductive Understanding, 즉 '귀납적 이해'라고 이름하고자 합니다.

※ 참고 사항 ※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제시문과 선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인용하였으며, 용어나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가나다순 찾아보기

공감각적	31		
구어적 말투	118		
구어체	118		
권유의 어조	103		
냉소적 어조	106		
단정적 어조	100		
담담한 어조	108		
대구	48		
대비	53		
대조	51		
대화	70		
대화체	73		
독백	84		
독백적 어조	93		
독백체	91		
말을 건네는 형식	78		
명령형 어조	102		
못마땅해 하는 어조	108		
문답	74		
반복	56		
반어적	10		
비유적	36		
상징	44		
서술자의 개입	121		
설의적	4		
성찰적 어조	112		
수미상관	64		
수미상응	69		
시청각적	34		
심상(이미지)	28		
아이러니	23		
어조	92		
어투(말투)	115		
역설적	14		
영탄적 어조	96		
예스러운 어투(말투)	115		
완곡한 어조	109		
요약적 진술(서술)	126		
의인화	41		
이미지	28		
일상적 대화의 말투	118		
직유	40		
청각의 시각화	32		
친근한 어조	110		
편집자적 논평	125		
표상	47		
활유	42		

차례

Chapter 1. 문학적 표현법과 그 효과

- 01. 설의 ... 4
- 02. 반어 ... 10
- 03. 역설 ... 14
- 04. 아이러니 ... 23
- 05. 심상과 이미지 ... 28
- 06. 공감각 ... 31
- 07. 비유 ... 36
- 08. 상징 ... 44
- 09. 대구 ... 47
- 10. 대조 대비 ... 49
- 11. (각종) 반복 ... 56
- 12. 수미상관 ... 64

Chapter 2. 화자 및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

- 13. 대화(체) ... 69
- 14. 묻고 답하는 형식 ... 74
- 15. 말을 건네는 형식 ... 78
- 16. 독백 ... 84
- 17. 어조 및 어투(말투) ... 92
- 18. 서술자의 개입 ... 121
- 19. 요약적 진술 ... 126

Chapter 3. 작품의 구조 및 전개방식

- . 알레고리
- . 액자식 구성
- . 시간의 흐름
- . 공간의 이동
- . 시선의 이동
- . 장면의 전환
- . 장면의 극대화
- . 시상의 집약

Chapter 4. 화자 및 인물의 정서

- . (내적) 갈등
- . 거리감
- . 친밀감
- . 소외감
- . 성찰과 반성
- . 고뇌, 번뇌, 번민
- . 미련

1 #설의 設疑 (베풀 設 의심할 疑)

설의법이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단 한 차례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설의법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의적(인) 표현'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있다. 설의적 표현은 매우 확실한 생각이나 감정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수사(구미)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도적 질문하기의 방식은 질문의 답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을 강조할 수 있다. 실제 기출 사례를 통해 설의적 표현의 예시와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CASE 1 - YES/NO 판정의문문 형식 (=반어의문문, 수사의문문)

卍 만흥(漫興) 윤선도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뚝더랴*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툰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 하암: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렬: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라: 약았더라.

《출처》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

→ 강산이 좋다고 한들 결코 내 분수로 누운 것은(편히 지내는 것은) 아니다.

ㄹ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세상에 옥당(출세의 공간)으로 간 이들이 있어도 전혀 부럽지 않다.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

ㄹ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 하물며 (술을 구하기 어려운) 교외인 이곳에서는 술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취할 뜻이 없다.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 이제야 팔려고 한들 (내가 팔려는 의종을) 알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도 사러오지 않을 것이다.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7번

㉣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물아일체(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을 느끼는 바가 서로 같다.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 이 몸이 이 맑은 흥을 가지니 권력 있는 제후도 부럽지 않다.

《출처》 2011학년도 수능 27번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O)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더라도 결코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출처》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A 31번

② ㉮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O)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O)

ㄷ 상춘곡(賞春曲) 정극인

송간(松澗)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퍼 놓은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㉓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ㄷ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 어둠이 오는 것이 무척 두려울 것이다.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는 길

→ 너희들은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㉑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O)

ㄷ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 꽃을 떨어뜨리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 어느 가지에도 의지하기 어렵다.

《출처》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㉔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ㄹ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출처》 2015학년도 수능A 44번

㉔ ㉕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0)

※주의※ 의문형 진술/표현 ≠ 설의적 표현 (의문형 표현 ⊃ 설의적 표현)

또한 설의적 표현과 유사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의문형 표현이 있다. 의문형 표현은 설의적 표현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다양한 의문형 표현 중 어떤 것은 설의적 표현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는 의문형 표현이지만 설의적 표현은 아닌 사례이다.

ㄹ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출처》 2002학년도 수능 16번

① (나), (다)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내 남편을 뺏아가시다니, 대체 왜 그러셨을까?’ 화자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설의적 표현이 아니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꼬?’ 역시 말하는 이의 앞날을 누구도 알지 못하므로 설의적 표현은 아니다.

2 #반어 反語 (돌이킬 反 말솜 語)

반어적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문맥만 잘 파악했다면 판단하기가 매우 쉽다. 반어 및 반어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반어 : 『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아이러니.

반어법 : 『문학』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하다는 뜻으로 쓴 '참 푸지게도 준다!' 따위이다.

▮ 흐르는 북 최일남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폐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울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쉿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복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번

④ ㉔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0)

→ 문맥을 잘 파악해보면, ‘기특하구나.’가 ‘하... 이것 봐라?’임을 알 수 있다. 즉 반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㉞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21번

㉞ ㉞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우리는 보통 애국가는 경청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를 잘 살펴보면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되는 애국(사실 권력에 대한 복종)에 대한 화자의 조롱을 읽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아무도 애국가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3 #역설 逆說 (거스를 逆 말씀 設)

문학에서 역설은, 겉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통해 삶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 등 오묘한 진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작가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왜 모순된 표현으로 더 어렵게 표현하려 하는가? 그것은 삶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 납작하고 단순한 표현으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이란 원래 무척이나 복잡한 것이다. 수능에서는 '역설'이나 '역설법'보다는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역설적'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역설적: [I] 「명사」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II] 「관형사」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ㄹ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출처》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㉟ ㉟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O)

새 김지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낮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뭉인 이 가슴

《출처》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깃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번

<보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해를 겪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Ⅱ 만무방 김유정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뺨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줄이며 흠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싶는데 빈 지계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옆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빗 [A] 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뭇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 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잡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뭇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릇을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뼛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종이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눈독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뭘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눈독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풍막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홉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통스러이 내뺨고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도지: 낱의 눈발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출처》 2007학년도 수능 16번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O)

Ⅱ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①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을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②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뭔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③원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몰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눌러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멩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메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질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O)
- ② ㉡: 서술 시점을 바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준다. (X)
- ③ ㉢: 책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O)
- ④ ㉢: 장면을 전환하여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O)
- ⑤ ㉢: 생각이 흘러가는 동안 행동도 함께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O)

4 #아이러니 Irony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반어.
- 「2」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 「3」 『문학』 역설(逆說)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의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수능에서, 특히 **수능 문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 바 있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보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소설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제시문을 살펴보자.

ㄷ 한계령 양귀자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슬하게

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불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

량이 사이로 내 보이던 낯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 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보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O)
- ②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X)
-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O)
- ④ '변해' 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 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O)
- ⑤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O)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㉞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18번

<보기>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㉞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O)

새 김기택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출처》 2020학년도 수능 45번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㉓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0)

5 #심상 心象 image

심상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이미지, 표상.

「2」『심리』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

수능에서 심상은 주로 「1」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심상과 비슷한 용어로 이미지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상은 보통 '감각적 심상', 즉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등으로만 출제에 활용되는 데 반해, 이미지의 경우 '감각적 이미지'('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색채 이미지')뿐만 아니라 '역동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수평 이미지', '수직 이미지', '몸의 이미지', '대조적 이미지' 등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1」『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심상.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 중 「1」은 심상과 같은 것이지만, 「2」는 말 그대로 '느낌'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ㄱ (가) 농가(農歌) 위백규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례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나) 동창이 밝았느냐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정학유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뽕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눈을 썬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품 진 :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 휘감아서 걷어 내자.

* 부록 :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㉔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O)

ㄱ (가) 이화우 흠뿌릴 제 계량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나) 만분가(萬憤歌) 조위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흠어지고
공산 축루(空山觸虜)*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迴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연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출처》 2007학년도 수능 52번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6 #공감각 共感覺

공감각적 표현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표현을 뜻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서로 다른 감각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CASE 1 - [A감각]이 [B감각]하다

♪ 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출처》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O)

→ 이 구절은 자칫 복합 감각적 심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유사한 표현인 '새파란 아이스크림이 시리다'는 '아이스크림이 새파랗다'와 '아이스크림이 시리다'로 나눌 수 있어 두 감각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평가원이 인정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해당 문장의 의미가 '새파란 이 시리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화자가 달 표면에 도착하여 달을 직접 촉각하지 않는 한, 해당 문장은 '초생달'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생달의 파란 달빛'을 감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직 시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초생달'임에도 '시리다'라고 하여 촉각적 심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각을 촉각화했다고 볼 수 있다.

ㄷ 우포늪 왁새 배한봉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텃텃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늪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O)

→ ㉡은 '왁새 울음'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시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어떤 색깔이나 느낌으로 물들게 하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울음'이 '솔밭을 다 적시고' 있다는 표현은 청각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 '꽃불'을 '질러 놓는' 것도 '울음' 소리가 불꽃 같은 꽃빛으로 전이되는 감각의 전이를 나타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은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을 수식하는 구조로 표현된 것으로서(CASE-2) 역시나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SE 2 - [A감각]하는 [B감각]

▶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은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이라는 시각적 표현으로 '절창'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한 수식 구조는 공감각적 표현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다. '푸른 종소리', '피부에 스미는 어둠'과 같은 유명한 공감각적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CASE -1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것들이다. '종소리가 푸르다', '어둠이 피부에 스미다'와 같이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서술하는 구조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O)

▶ ㉣ 가야금 곡조 따라 광한루까지.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 자락, 우리 연구소에서 즐겨봅시다. (O)

→ 이 구절은 '옥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수식하고 있다.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옥빛'은 시각적 심상이므로 청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수행 평가 과제로 장래의 명함을 만들고자 한다. [A]에 들어 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기>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할 것

CASE 3 - [A감각] 같은 [B감각]

▶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 이 구절은 청각적 심상인 '까마귀 울음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검정 포대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 포대기'와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34번

㉠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O)

종합하면 공감각적 표현(감각의 전이)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각적 심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한 가지 감각적 심상이 다른 감각적 심상을 1. 서술하거나 2. 수식하거나 3. 빗대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직접 연결되어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번져나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의※ 시·청각적 이미지 ≠ 청각의 시각화

평가원 기출에 나타난 용어 중 '시·청각적 이미지'라는 것이 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시·청각적 이미지'는 결코 시각적이면서도 동시에 청각적인 이미지(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다. TV를 통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시청자'라고 하는데, 방송은 시각(화면) 정보와 청각(소리) 정보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일 뿐, 이들이 전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기출 사례를 통해 복합 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ㄹ 면앙정가 송순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길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㊸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켜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 안저(眼底)에 별엿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 눈 덮인 들판과 산.

《출처》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번

㉣ ㊸: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O)

→ '어적'은 어부의 피리소리이므로 청각적 이미지, '달'은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두 가지 감각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ㄱ 박씨전 작자미상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환우성)*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㉔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출처》 2009학년도 수능 48번

㉔ ㉔: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0)

→ '층암은 층층하여~'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비죽새는 슬피 울어~'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7 #비유 比喻 (견줄 比 깨달을 喩)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말한다. 수능 기출 선지에서는 주로 '비유적 표현', '비유적 진술', '~에 빗대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ㄹ 조찬(朝餐) 정지용

해스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이윽한 : 시간이 지난. * 길경 : 도라지.

《출처》 2015학년도 수능 A형 31번

㉔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O)

ㄹ 유충렬전 작자미상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퓌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출처》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40번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O)

ㄹ (가) 여승(女僧) 백석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담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뺨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나)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지,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㉔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O)

→ 특정한 비유법에 해당되지 않는 애매한 표현일지라도, A를 B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평가원이 인정해주고 있다.

ㄷ (가) 추일서정 김광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출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

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빛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ㄷ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형 32번

㉔ [B] :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빛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면앙정가 송순

무등산 한 활개 뒀다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 쌍룡이 뒹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B]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흠으랴
 ┌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출처》 2010학년도 수능 36번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O)

ㄷ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작자미상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궤(空圍)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흐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그읍는 길시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㉓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O)

ㄷ (다) 조어삼매釣魚三昧 김용준

세상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툰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쟈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 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 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 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흑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 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한묵 :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출처》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번

㉓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O)

㉓ (다) 때 김광규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출처》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O)

Ⅱ 강 서정인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접때두 일등했어요.”

아, 이걸 뽀뽀스렵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선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짹짹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 짹 끼는 소리가 들려 온다. 식모의 고무신 짹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곤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폿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따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22번 ([A]에 관한 물음)

③ 사물을 **활유적**으로 표현하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해. (O)

※ 도움말 ※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수사법적 지식을 깊이 묻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된 바가 없다. 비유인지 아닌지, 비유라면 사람에 빗댄 것인지 아닌지,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

8 #상징 象徵 (모양 象 부를 徵)

「1」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삼다.

사랑의 상징이었던 손수건은 눈개의 눈물받이 손수건이 되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2」 『문학』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것 따위가 있다. ≡심벌.

문학에서 비유와 상징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수능에서는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도 둘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교적 명확히 인식되고 1:1의 대응을 이루는 것이다. 반면 상징은 보조관념만 드러날 뿐 원관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상징의 원관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多:1의 대응을 이루게 된다. 더 쉽게 말해드리면, 하나의 보조관념을 두고 그것이 연결된 원관념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상징, 보조관념이 연결된 원관념을 명확히 하나로 특정할 수 있다면 비유라고 보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ㄱ (다) 또 다른 고향故郷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출처》 200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

- 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O)
-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O)
-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O)
- ④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O)

ㄹ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㉔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출처》 2013학년도 수능 14번

㉔ ㉔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O)

ㄹ (다) 가정家庭 박목월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㉔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

㉔ ㉕: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도움말 ※ 결국 수능 문학에서 'A는 B를 상징한다'고 하면, 'A는 B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A는 B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면 'A는 B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비슷한 말 중에 수능 선지에 쓰인 것으로 '표상'이 있는데, 표상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이다. 어떤 생각이 나 관념을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드러낸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번

㉔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9 #대구 對句 (대답할 對 구절 句)

대구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한다. 그런데 어조나 어세를 기준으로 대구를 판단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므로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수능 기출 선지를 기준으로 할 때, 대구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어구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ㄱ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감감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A형 31번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ㄷ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 ~한 A는

α하였고

~인 B는

β하였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34번

㉓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O)

ㄷ ㉑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 부족했는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 나의 충성이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이 부족했는가.

《출처》 2016학년도 수능B형 38번

㉑ ㉑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ㄷ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A하고 α할꺼나

B하고 β할꺼나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형 38번

㉔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O)

10 #대조 對照 (대답할 對 비출 照)

「1」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를 것을 검토함. ≒비준.

장부 대조. / 설명의 방법으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등이 있다.

「2」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

둘의 성격이 대조가 된다. / 그의 까만 얼굴과 흰 이가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의미 중 문학 선지에 등장하는 대조의 의미는 주로 「2」의 대조를 말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조를 설명하면서 대비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대비란 무엇인가? 다음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보자.

#대비 (대답할 對 견줄 比)

「1」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

「2」 『미술』 회화(繪畫)에서, 어떤 요소의 특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색채·톤(tone)을 나란히 배치하는 일.

「3」 『심리』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 빛깔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감각, 감정 따위의 심적 활동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나타날 때에도 볼 수 있다. ≒대비 현상.

국어 영역이니만큼 문학 선지에서의 대비는 「1」의 의미로 쓰임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하면 대조는 두 대상이 서로 달라서 그 차이가 비교되어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비는 대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만 알아두자. 적어도 수능 문학에서 대비와 대조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문제 풀이에 있어서나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ㄷ (나) 어옹漁翁 설장수

不爲浮名役役忙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生涯追逐水雲鄉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平湖春暖烟千里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古岸秋高月一航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紫陌紅塵無夢寐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綠簑青笠共行藏 초록 도롱이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一聲欸乃舟中趣 여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那羨人間有玉堂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옥당: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 세속과 연관된 붉은 먼지와 자연과 연관된 푸른 삿갓의 대비를 통해 세속의 더러움과 자연의 깨끗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O)

ㄷ ㉔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 지게 위에 거적 덮어 가는 초라한 장례와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를 대조하고 있다. 가장 초라한 죽음이나 가장 화려한 죽음이나 결국은 생의 끝이라는 동일한 지점임을 강조한다.

《출처》 2002학년도 수능 41번

㉔ ㉔ :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해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O)

卍 (가) 성산별곡 정철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늪은 고불 귀는 어찌 찢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찢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찢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다) 신록예찬 이양하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
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
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
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
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
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
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
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
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
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출처》 2013학년도 수능 46번

㉔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O)

→ (가): 인심, 세사 ↔ 술, 거문고, 학 (나): 자연 ↔ 세속

♪ (가) 새 1 박남수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나) 어머니의 그릇 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다)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출처》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㉔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

→ (가): 새, 순수 ↔ 포수, 낚, 상한 새 (나): 그릇 ↔ 그릇 (다): 노래 ↔ 이야기

11 #반복 反復 (돌이킬 反 돌아올 復)

반복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2번 이상 되풀이되면 반복이 성립되므로 선지를 판단하기도 매우 쉽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반복의 수능적 활용 양상을 확인하자.

CASE 1 - 동일한 것의 반복

ㄱ 은행나무 관재구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출처》 2005학년도 수능 19번

- ㉔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O)
→ 작품 전반부의 '노오란 우산깃'은 은행나무의 외양을 표현한 것이라면 작품 후반부의 '노오란 우산깃'은 우리 민족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비유됨으로써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ㄷ 시집살이요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데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보다 더 매울까
시집 삼 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떠나고 장다리꽃이 다 떠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데까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문을 열어 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솔뚜껑을 열어 보니 녹이 하나 가득하고
아궁지를 들여다보니 각시풀이 가득하고
물독을 들여다보니 쟁개비가 가득하고
열두 폭의 다홍치마 헛대 끝에 걸어 놓고
들며 나며 나며 들며 눈물 씻기 다 썩었네.

《출처》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㉓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율격을 살리고 있다. (O)

→ ~을 ~하여 보니 ~이 가득하고 X 4

ㄷ ㉑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첩첩첩 흐르듯 길푸른 산아

《출처》 2006학년도 수능 18번

(나)의 ㉑~㉒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
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
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
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중략)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O)

→ 시구는 시의 구절을 말한다. 구절은 구와 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을 말한다. 절은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말한다.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었다면, 당연히 동일한 시구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원의 오피셜한 해설이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 강조는 자동이다.

▶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출처》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A형 31번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O)

→ 반복의 효과 중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반복되는 구절이 두 연에 걸쳐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끔 이어준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반복은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 O/X 퀴즈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형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O / X)

(가) 발열發熱 정지용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증얼거리다, 나는 증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거문고 김영랑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 (가)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깊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다) 마음의 고향 6 - 초설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담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출처》 2013학년도 수능 32번 (가~다의 공통점)

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0)

→ 어느 정도로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진짜 언어적 감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위 사례 중 (나)의 사례는 '이것도 유사한 어구의 반복으로 봐야 하나?' 싶을 정도이다.

(가) : ~이 없이 떨어진다 X 반복

(나) : 흔들리~ X 반복

(다) : ~에 있지 아니하고 X 반복

▶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굶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먹던 밥을 털어 주고 얼어서 병든 사람 입었던 옷 벗어주기, 늙은이의 쭈어진 짐 자청하여 져다 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샅안 받고 건네주기,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 지켜주고 길에 보물이 빠졌으면 지켜 섰다 입자 주기, 청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고 묻어 주며 수절 과부 보쌈 하면 쫓아가서 빼어놓기, 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나서 발명하고 애잔한 늙은 황액 보면 달려들어 구원하기, 길 잃은 어린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하기, 계집불살(啓蟄不殺)* 방장부절(方長不折)*

《출처》 2004학년도 9월 모의평가 56번

④ 유사한 성격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O)

→ 그냥 '유사한 구절'이라고 하면 표면에 드러난 표현상의 유사성을 의미하게 되지만, '유사한 성격의 구절'이라고 했으므로 의미적으로 비슷한 구절이 되풀이되면 적절한 선택지가 된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흥부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반복이든 반복은 필연적으로 율동감, 리듬감, 운율감 등을 생성한다.

▶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바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출처》 2003학년도 수능 31번

①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O)

→ 유사한 구조라... 유사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두고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이 없어도 '유사한 구조를 통해~'라고 되어 있으면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에서 '땀은 듣는 대로~'와 '별은 쥘 대로~'는 유사한 구조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디서 길 가는~'과 '어디서 우배 초적이~' 두 문장도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출처》 2016학년도 수능B형 38번

㉠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 ‘나의 ~ 부족던가’ X 반복

※ 도움말 ※ 종합하면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히, 100%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일부 변형이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함을 묻는 단위가 시구인지 시행인지(한 줄)를 주의하여 성급하고 허무한 오판을 내리는 일은 피해야 하겠다. 또한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제시문에서 ‘동일한 어구가 반복된다’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과한 걱정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어두자.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평가원 문항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12 #수미상관 首尾相關

(머리 首 꼬리 尾 서로 相 빗장 關)

시행의 반복이 작품의 처음과 끝에 나란히 나타나면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는 용어는 수능에 출제된 바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오히려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등과 같이 수험생이 판단하기 쉽도록 더 풀어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ㄹ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 고고孤高 김종길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가, 나의 공통점)

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가 작품의 초입과 말미에 반복되고 있다. 수미상관도 유사한 것의 반복이므로 강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㉕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훑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행A형 40번

㉖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O)

→ ‘어느 날 당신과 내가 ~’가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마무리하면 작품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

♪ (가) 와사등 김광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나) 사령死靈 김수영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출처》 2008학년도 수능 14번 (가~나의 공통점)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 두 작품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자.

ㄱ (가) 마음의 태양 조지훈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출처》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가)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출처》 2003학년도 수능 15번

㉸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응**의 방법을 써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 수미상응의 사전적 의미는 ‘양쪽 끝이 서로 통함’이다. 사실 유사한 구절을 배치해도 충분히 수미상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구절을 배치했으니 100% 수미상응이라 할 수 있겠다.

13 #대화 對話 (대답할 對 말할 話)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또는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말한다. 따라서 대화라고 하려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야 하며, **둘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지만 확인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독(毒)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번

㉟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O)

→ '독을 차고'에서는 화자와 벗과의 대화를 인용함으로써 대화 상황이 설정되고 있다.

벗: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려

화자: 헛소리 하다가는 너도 이 독에 다칠지 몰라.

벗: 어차피 다 허무한 일이야. 독은 차서 뭐하게?

화자: 아!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만큼, 내 인생 허무한 거 맞지. 인정.

그렇지만 말야, 내 마음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나는 독을 차고 쿨하게(선선히) 갈 거야.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지.

▶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 동생과 형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동생: 형님 드셨던 어머니의 젓을 내가 뒤이어 먹습니다.

형님: 어와 우리 동생, 어머니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와 다르겠느냐.

《출처》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번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O)

※ 주의 ※ 대화의 형식이 아닌 사례

~P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썬인가 흐노라 <제3수>

→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대화의 형식이 될 수 없다. 위의 작품에는 청자인 '너' (매화)가 명확히 등장하고 있지만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 따름이지 말을 주고 받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 31번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X)

~P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㊸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출처》 200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④ ㊸ :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X)

→ 청자와 대화 상대자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 평가원은 이 둘을 확실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대화 상대자는 말 그대로 대화의 상황에서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이다. 다음의 사례에 드러난 '농부'는 청자이기는 하지만 대화 상대자가 아니어서 틀린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다. 즉 누군가를 불러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형식은 대화의 상황이나 형식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화체

대화체는 **대화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를 말한다. 따라서 위의 대화(의) 형식으로 서술된 작품은 당연히 모두 대화체로 볼 수 있다. 대화체와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로 볼 수 있느냐이다. 시중의 참고서는 대화체를 칼같이 '대화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인정하는 계열과 '대화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어투나 말투를 갖추면 폭넓게 인정하는 계열로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평가원 기출에서 '대화체'가 나타난 모든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선택지가 어떤 작품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작품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 수 없어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출처》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 (나)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X)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X)

《출처》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X)

'대화체'라는 용어는 수능에는 출제된 적이 없다. 모평마저도 2013학년도 6평 이후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해당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화체' 적용 여부를 시도함에 따른 것인데, 결론적으로 어느 쪽을 따라도 기출을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화체'를 '대화의 형식'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명료해지는 장점이 있다. 글쓰기 또한 정신건강을 위해 '대화체'를 대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려 한다.

14 #문답 問答 (물을問 답할 答)

대화와 유사한 것으로 문답이 있다. 문답은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묻고 다른 누군가가 대답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대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묻고 답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헤아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자답의 형식은 결코 대화로 볼 수 없으며 독백으로 봐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자.

卍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권섭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머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幙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흥동 : 흥에 겨워 다님.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출처》 2013학년도 수능 49번

<보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작자-또 다른 인물-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희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화자가 바뀌는 것은 희곡에서 대사를 말하는 인물이 바뀌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작품은 극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O)

→ '좋은 기약 잊지 마오'라고 요청하니 벼들은 공부한다고 거절하고, '우리끼리 놀아보자'라고 다른 벼들에게 요청하니 다른 벼들도 피로와 육아를 핑계로 거절하고 있다.

ㄱ 일동장유가 김인겸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	[B]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채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엇디어 문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	[C]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 문답의 형식은 대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글을 통한 것이든 무엇이든 화자는 물었고(스바라시 작문 스피도! 이쇼니 하지메테데스! 마사카, 센세가 퇴석 데스까?) 청자가 대답했으니(하하하!!!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칭찬이 과해서 부끄^^럽구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문답은 대화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45번

<보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O)

㉑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¹⁾—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 왜 사는지 스스로 묻고, '유위전변'을 위해 모든 것이 사는 것 같다는 대답을 내어 놓고 있다. 자문자답도 묻고 답하는 형식의 일부이다.

《출처》 2005학년도 수능 39번

㉒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

㉑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C]
└

→ 화자는 '사촌 성(형)님'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물었고, '사촌 성님'은 머리카락이 쓰러 꺾질 (빛자루 재료)처럼 되었노라고 하며 시집살이의 어려움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 32번

㉒ [C] :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0)

㉑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보다 더 매울까

시집 삼 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피나고 장다리꽃이 다 피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문을 열어 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중략)

들며 나며 나며 들며 눈물 씻기 다 썩었네

《출처》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㉒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정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

→ 화자는 '사촌 형님'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사촌 형님'은 '맵다'라든지 '눈물'이라든지의 단어를 활용하여 시집살이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1) 유위전변: 세상일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다) (전략)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출처》 2004학년도 수능 52번

㉿ (다)와 달리,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나)에서는 '일곡은 어드매오'라고 묻고 '관암'임을 스스로 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다)에는 유일한 의문문이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인데, 뒤따르는 답변이 없으므로 결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볼 수 없다. 설의적 표현이므로 대답이 내재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용'까지 고려한 것이지 '형식'만 보면 결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 #말을 건네는 형식

말을 건넨다는 것은 한 쪽에서 한 쪽으로 말을 건다는 것이지, 서로 주고 받는다는 뜻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자가 실제로 화자의 말을 들을 수 있냐 없냐 또한 관계가 없으므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독백의 상황에서도 성립**한다. 결국 말을 건네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걸기만 하면 성립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를테면 화자가 **누군가를 부르지만 해도 성립**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것은 그 대상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청자를 설정하는 행위이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로 봐야 한다.

(가)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서정주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문을 열어 달라고 '꽃'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나) 나무를 위하여 신경림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나무들'을 부르며 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된다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며 공감과 연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에서는 독특하게도 청자를 부르는 말이 시의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대상에게 건네는 말의 내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마지막에 부르는 말을 근거로 할 때, 앞부분의 시상 전개 내용은 '나무들'에게 건네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 만언사 안조원

사랍을 젖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납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납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 '백구'에게 '너'는 영물이기에 욕심 없는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라며 날지 말라고(도망가지 말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작품 중반의 '백구야 날지 마라' 이후로는 모두 '백구'에게 건네는 말로 보면 된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가~다의 공통점)

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0)

→ (가)의 의인화된 청자 : 꽃

(나)의 의인화된 청자 : 나무들

(다)의 의인화된 청자 : 백구

ㄷ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보기>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흐고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흐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돌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출처》 2014학년도 수능B 40번

㉔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O)

→ '홍진에 묻혀 사는 분'들에게 화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으며, 이러한 과시적
질문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자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내 신발은 /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번

㉟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

→ 화자는 막내의 신발을 보며 막내를 떠올리고선 '귀염둥아'라고 부르며 '내 얼굴을 보아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호명) 하는 방식 등으로 청자를 설정하게 되면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청자가 대답을 한다면 바로 '대화의 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ㄹ (나)

청천(靑天)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구(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흐고 부디 한 말을 전_ㅎ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ㄱ읍는 길이오매 전_ㅎ동 말동 _ㅎ여라

* 웨웨터 : 외쳐.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짜리골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 33번

㉔ (나)의 '전_ㅎ여 주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O)

→ (나)는 외기러기를, (다)는 뱃사공을 각각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나)의 경우
작품 전체를 보면 대화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화의 형식이란 곧 서로
말을 건네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16 #독백 獨白 (홀로 獨 흰 白)

「1」 혼자서 중얼거림*.

*중얼거리다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다.

「2」 『연기』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모놀로그. (모놀로그 ↔ 다이얼로그)

수능 문학에서의 독백은 화자(인물)가 혼자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가 딱히 나타나지 않거나, 작품에 청자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독백으로 간주한다.**

CASE 1 - 극에서

ㄱ (가) 오발탄 이범선 원작 / 나소은 · 이종기 각색

S# 66. 철호의 집 앞
철호가 프락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가]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 터벅 걷는다.
여기에 덮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씀입니까?”

《출처》 2002학년도 수능

55. <보기>는 (가)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 래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 이범선, 오발탄 -

② 철호의 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독백**을 하나 집어넣도록 한다. (0)

→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철호가 실제로 어머니를 앞에 두고 대화하듯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철호는 어머니의 “가자!” 하는 소리를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

▮ 송달지 :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안 됐어. 다시 한번,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줄까, 헛 그럴 테지. 이름 석 자 빌려 줄 수야 있나, 어디 다시 한번…….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어, 어, 어렵쇼? (하연, 하수로 등장.)

하연 : 형부, 혼자 무슨 장난이셔요?

→ 자신의 이름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는 내적 갈등을 혼잣말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아래 ‘혼자’ 무슨 장난을 하느냐는 하연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출처》 2001학년도 수능 56번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0)

ㄹ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출처》 2002학년도 수능 14번

- ㉔ ㉕ :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준다. (0)
→ 그렇다. 2인칭의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더라도, 대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백이라
고 봐야 한다.

ㄷ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출처》 2003학년도 수능 15번

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O)

→ 그렇다. 이 시는 독백이다. 청자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면 독백이다.

ㄱ 나룻배 이야기 하근찬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낫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계?”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른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계?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계? 부러 카능계?”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멍기는 사람인 줄 아능계? 허 허…….”

“하야,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裵)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가?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혔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끓였다. 대열이도 덩달아 빼이빼

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빠다귀가 뭐 어찌고 어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일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앙?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앙?”

“……”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머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별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별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별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שמ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들이 서리었고,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곳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빠다귀라 그 말씀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들땀들한 살점

이 곧장 실룩거리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 킁킁 짖어 댄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견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짙짙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웃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짖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깔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출처》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²⁾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독백적 발화는 독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두칠이는 천달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독백으로 드러내고 있다.

ㄱ (전략)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0)

→ 1인칭 서술자인 '나'는 딱히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혼자 말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서술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독백이므로 '발화'라고 할 수는 없으니 '진술'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2) 발화: 『언어』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또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체.

#독백체

독백체가 출제된 바는 다음의 한 차례뿐인데, 이마저도 틀린 선택지라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하자면, 대화체가 대화의 형식이 포인트이듯, 독백체도 독백의 형식(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이라면 모두 독백체라고 본다.

《출처》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X)

※ 참고 ※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독백에 관련된 문학 용어의 분포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단절 ☹	☺♥ ((?))
청자가 명확한 상황		청자가 불명확한 상황
대화 상대자		
대화(의 형식)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형식		
문고 답하는 형식 (자문자답 포함)		
일상적 대화의 말투 (구어체)		
		독백의/독백적 어조

대화체와 독백체는 적절한 선택지로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출을 바탕으로는 무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화체의 사전적 의미가 '대화의 형식으로 서술되는 문체'이므로, 사전에 나타난 그대로 '대화의 형식'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좋겠다.

☺♥ - ♥☺	☺♥ 단절 ☹	☺♥ ((?))
대화체	독백체	

대화체는 화자의 말투에 관한 문체가 아니라 작품의 서술 형식에 관련된 문체이다. 따라서 대화의 형식만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대화체, 아니면 독백체인 것이다. 대화체를 위와 같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게 규정하면 대화나 독백과 관련된 문학용어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7 #어조 語調 (말씀 語 고를 調)

「1」 말의 가락. ≒구조. 「비슷한말」 어기(語氣), 어세(語勢)

「2」 『언어』 음(音)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하게 함. 또는 그런 변화. 음절 억양, 단어 억양, 문장 억양 따위가 있다. =억양.

위에서 볼 수 있듯, 어조의 사전적 의미는 말의 가락이다. 그렇다면 가락은 무슨 뜻인가?

「1」 목소리의 높낮이나 길이를 통해 느껴지는 말의 기운.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음의 연속이나 노랫가락을 세는 단위. =곡조.

「3」 『음악』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 한자를 빌려 '加樂'으로 적기도 한다. ≒선율, 율선, 조자.

문학 작품을 논하는 상황에서 가락이라 함은 위의 「1」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누군가 음성으로 낭송해주는 시나 소설을 듣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의 기운은 화자의 상황, 정서, 시어의 문맥적 의미 등을 통해 추론해내야 한다.

17-0 #어투 語套 (말씀 語 뉘개 套)

어투란 말투와 같은 것으로 말하기의 방식(way of talking)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말투는 어휘나 종결 표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 화자가 어떤 어휘를 쓰고 있는지, 높임법을 쓰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다.

어투와 어조는 의미적으로 결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나의 진술로부터 어투와 어조가 공통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로 쓰인 진술에서는 당연히 '친근한 어조'가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투나 어조가 핵심이 아니라 '친근한' 태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작품감상능력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17-1 #독백적 어조

독백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인데, 중얼거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중얼거리다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다.) 독백의 어조란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ㄱ (가) 강우(降雨) 김춘수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뿔 두 뿔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출처》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하는 그의 말은 메아리가 되어 공허하게 울린다. 비록 문자로만 쓰여 있지만, 우리는 작품을 통해 그의 말의 가락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즉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을 통해 합리적으로 어조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 독백적 어조는 이러한 중얼거리는 억양 및 톤을 말하는데, 어조는 말의 가락이므로 실제 발화 상황이 독백이나 아니냐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다. 기출에서 선택지로 명확히 등장한 적은 없지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어조로 말하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아래는 그러한 사례이다.

ㄱ 모반 오상원

그는 순간 며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47~50] 본문

→ 밑줄 친 발화는 어머니가 독백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눈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못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잣말을 한 것은 아니리라)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 독백처럼 작게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의 상황에서도 독백을 하듯 말하는 어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ㄱ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출처》 2014학년도 수능A 31번

㉓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

→ 화자는 청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작품의 분위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연에서는 ‘~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문장이 마무리되면서 영탄의 어조도 함께 느낄 수 있는데, 영탄의 어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확인해보자.

17-2 #영탄적 어조

영탄은 목소리를 길게 뽑아 깊은 정회(情懷)를 읊는 것이다. 정회(情懷)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뜻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길게 읊어내는 어조가 바로 영탄적 어조이다. 통상적으로 감탄하는 말로 끝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설의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하는 문장에서 영탄적 어조를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때의 감정이나 생각은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ㄷ 발열(發熱) 정지용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출처》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보기> □.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㉔ □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O)

→ ‘아아’와 같은 감탄사, 그리고 비록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감탄형 어미 ‘-노나’(-구나)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됨)가 각각 사용된 것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과 함께 감탄사가 나타나거나 감탄형 어미로 종결된 문장은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

▶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중략)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밭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후략)

《출처》 2005학년도 수능 39번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

→ 위에서 영탄적 어조가 확실하게 나타난 문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의적 의문문

-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 아니다. 아무런 멋이 없다.)
-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 아니다. 향락하고 향락 당하지 않는다.)
-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 그렇다. 복이 족하다.)
-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밭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 허물할 이 없다.)
-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 그렇다. 찾을수록 멀어진다.)

나. 감탄 의문문

-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 안타깝다! 괴롭지 않은 세상인데!)

다. 감탄문

-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 우아함이 되는구나!)

라. 돈호법

-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 이여: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흔히 감탄이나 호소의 뜻이 포함된다.)

卍 (가) 소년에게 이육사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랴

*진준가: 진주인가.

*한가: 가장 끝 부분.

(다) 어부단가 이현보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

*청하: 푸른 연잎.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출처》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번

㉟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O)

→ 선택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마지막 시행뿐이지만(시상의 집약은 마지막에만 나타나므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 시행은 더 많다. '-도다/-로다'는 대표적인 감탄형 어미이다. '-아라/어라' 및 '-여라'는 명령형 어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감탄형 어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의적 표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영탄적 어조를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가)와 (다)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택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탄적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7-3 #단정적 어조

▶ (다)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氷玉) 같은 심정을 그리려 하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고, 다시 붓을 바꾸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이 상강(湘江)의 냇을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이다.

(중략)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자(作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뜻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代)의 공민(共悶)이요, 사회(社會)의 공분(共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身邊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를 여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을 통하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이 아니요 응시(凝視)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라야 정(情)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의지가 강렬한 남자는 과묵한 속에 정열이 넘치고,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장황하고 산만할 수가 없다. 사진의부진(辭盡意不盡)의 여운이 여기 있는 것이다.

깊은 못 위에 연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바닥에 찬물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 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음미(吟味)에 음미를 거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멀수록 맑은 향기가 은은히 퍼지며, 한 송이 뚜렷한 연꽃이 다시 우아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글이 쓰고 싶고, 이런 글이 읽고 싶다.

《출처》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55번

㉔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O)

→ 단정적이라 함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단정적인 어조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말의 가락을 뜻한다. 추측이나 짐작을 배제하고 'A는 B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느껴진다면 이는 단정적인 어조라고 할 수 있다.

ㄱ (나) 나무의 수사학 1 손택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출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㉓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O)

→ 단정적 어조를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은 단정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17-4 #명령형 어조

♩ (가) 산상(山上)의 노래 조지훈

높으디높은 산마루
넓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출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㉓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O)

→ 명령형 어미를 활용한 명령문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형 어조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17-5 #권유의 어조

ㄱ (가) 흥부 부부상(夫婦像) 박재삼

흥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옷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이삭이 문제리,
옷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옷어 비추어 주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나) 무등(無等)을 보며 서정주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지덤불 쪽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이지요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다)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출처》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가~다의 공통점)

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을 **권유의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O)

→ 권유란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다)의 경우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에서 권유의 어조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가)와 (나)의 경우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권유의 어조를 연결짓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치킨 좀 드세요.'는 명령형 문장이므로 상대방에게 치킨을 권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화자는 청자에게 분명히 치킨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명령문에서도 권유의 어조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조는 문장의 문법적 형태를 넘어 의미적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17-6 #냉소적 어조

ㄹ 만세전(萬歲前) 염상섭

(전략)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얹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중략)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례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갑살릴* 것 다 갑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도회 :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 비단옷과 명주옷.

* 갑살리다 :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출처》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B 41번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

→ 냉소적 어조란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어조를 말한다. 식민지 조선의 봉건적 사고방식을 비웃고 조롱하는 염상섭의 어조는 냉소적 어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17-7 #담담한 어조

▶ (중략)

[B]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뒤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후략)

*이향: 고향을 떠남.

《출처》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번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은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O)

→ 담담하다는 것은 차분하고 평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절제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차분하고 평온하게 말하는 가락을 담담한 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자(나)는 문장을 간결하게 매듭지으며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게 서술하고 있다.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마치 사물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듯 차분하게 읊어가는 어조를 평가원은 담담한 어조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17-8 #못마땅해 하는 어조

▶ 어사또 목이 메여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이에 춘향아, 우지 마라. 상여(喪輿) 탈지 가마를 탈지 그것이야 누가 알겠느냐마는, 천붕우출(天崩牛出)이라 하였으니 솟아날 굼기가 있느니라. 오늘 밤만 죽지를 말고 내일 날로 상봉하자.”

[아니리] “춘향아, 내가 너더러 할 말이 있다마는…….”

춘향 모 이 말 듣더니,

㉠“자네 누구 뻘세 말 못 허는가, 나 있다고 말 못허는가?”

“향단아, 마나님 잘 모시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서방님, 마나님 하시는 말씀 곡해(曲解) 마시고 집으로 가사이다.”

(하락)

《출처》 1995학년도 수능 28번

28. ㉠의 어조로 적절한 것은?

㉡ 못마땅해 하며 (O)

→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은 옥에 갇힌 춘향이와 초라한 몰골로 나타난 이도령이 재회하는 장면이다. 춘향 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 하나 당장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이도령이 사위로서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좋게 나올리가 없다. 못마땅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는 것이다.

17-9 #완곡한 어조

▶ ㉡ 이 ‘두꺼비 늪’은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공간으로서 저희들의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이 곳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출처》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부탁하는 내용을 **완곡한 어조**로 쓸 것.

→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명령형 어조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청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알려져 있다. 완곡하다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는 뜻이다. 시장님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두꺼비 늪’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위와 같이 돌려 말하고 있으니 완곡한 어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완곡 어법을 능수능란하고도 적절하게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17-10 #친근한 어조

(나)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㉔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O)

~P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
 은 금덤판 /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
 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산(山)
 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가)는 청자가 누군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라체로 묵묵히 독백을 읊어나가는 반면, (나)
 의 경우 같은 독백일지라도 청자를 높이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며
 가깝고 호감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친근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치킨을 먹
 었다.'보다는 '저는 치킨을 먹었어요.'가 말에서 더 친근한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P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과…… 높다란 굴뚝이 있는 제분 공장, 펼쳐진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있
 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
 가곤 했습니다.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
 알은 울울이 흩어지고,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풀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 우리
 는 철로에 닿곤 했습니다.

《출처》 2004학년도 수능 31번

㉟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0)

→ 청자를 높이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여 친밀감을 부여하고 있다. 특
 히 해요체는 비격식체이다보니 이러한 친밀감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17-11 #성찰적 어조

ㄱ 구름의 파수병 김수영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
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출처》 2017학년도 수능 28번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O)

→ 성찰이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문맥을 바탕으로 화자가 스스로를 살펴보는 내용이 나타난다면 성찰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위 작품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라는 도입부에서 이미 화자의 성찰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성찰의 내용이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솔에서는 화자의 솔직한 성찰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ㄹ (가) 구두 한 켤레의 시 곽재구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쭈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죽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출처》 2012학년도 수능 33번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O)

~P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저 하
 늘 저 빛같이 저리 고을까 //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 바람을 타고서 고
 이 들리데

*영 : 고개.

→ (가)의 화자는 고향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고향의 강물소리를 듣는다. 이 강물 소리는 화자를 성찰의 길로 이끈다. 구두의 외양 묘사에 빗대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과 함께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도 드러난다.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성찰적 어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나)에는 화자의 내면을 살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7-12 #예스러운 어투

어투라는 표현은 수능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두어 번 출제된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지금 소개할 '예스러운 어투'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예스러운 어투'는 '예스러운 말투'와 함께 익히는 것이 좋겠다. 어투와 말투의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투나 말투는 어휘, 종결 표현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속하게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다.

▶ (전략)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중략)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충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후략)

*채반(-盤):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출처》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3번

㉓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O)

→ 어투는 말을 하는 버릇이나 됨됨이를 말함인데, 쉽게 생각해서 '말하는 방식' (way of talking)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어투는 화자가 사용하는 문장에 드러난 어휘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위 제시문에는 현대에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 및 사자성어 등이 쓰여 예스러운 말투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예스럽다는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는 뜻이다.

卍 고품 의상 조지훈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부연(附椽) :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 초마 : '치마'의 방언.

《출처》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㉔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O)

→ '-니', '-도소이다', '-리니', '-어지이다'와 같은 표현들은(아름다운 중세국어 같은 느낌)
예스러운 말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卍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
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
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중략)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
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

(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랴.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출처》 2005학년도 수능 39번

㉠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0)

→ ‘-는지라’, ‘-랴’, ‘-느뇨’, ‘-노라’ 등은 현대에 잘 쓰이지 않고 예스러운 멋을 풍기는 표현들이다.

17-13 #구어적 말투(일상적 대화의 말투)

일상적 대화의 말투(구어적 말투)는 얼핏 보기에 대화체와 유사해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일상적 대화의 말투는 **구어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어체의 사전적 정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투'라고 되어 있다. 반면 대화체는 문장 하나 하나에서 드러나는 말투라기 보다는 대화라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서술되는 작품의 양식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말을 건네는 형식'까지 대화체로 보는 시각은 구어체와 대화체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의 사례는 평가원이 생각하는 운문 속 '일상적 대화의 말투(구어체)'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뒷장에서 보게 될 '구어적 성격'이나 '구어적 표현'도 구어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卍 이별가 박목월

뒤편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카노 뒤편카노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뒤편카노 뒤편카노
니 흰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뫼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출처》 1997학년도 수능 53번

④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O)
→ 화자는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는 청자(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러나 비록 청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황을 가정하고 말을 하면 마땅히 일상적 대화의 말투가 드러나게 마련일 것이다. 밑줄 친 구절들은 그중에서도 이러한 구어체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덧붙임: 대화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대화 상황인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니 위의 작품을 대화체 또는 대화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 (전략)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중략)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네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훈디 가고져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히 므으물 츠싱 니줄 주리 업스니

(자네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2]본문

→ 화자는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는 청자(자네)이지만 편지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서술하고 있다.(말을 건네는 형식에 해당함) 따라서 언간의 내용 전체가 구어체에 해당한다. 밑줄 친 구절들은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ㄹ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데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보다 더 매울까
 시집 삼 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피나고 장다리꽃이 다 피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데까
 (후략) -시집살이요(양주 지방)

《출처》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④ 문어적 표현보다는 **구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O)

→ 시집살이노래는 대화의 형식으로 서술되는 작품이다.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만나 서로 대화를 하는 형식이니 당연히 구어적 표현이 많이 드러나게 마련일 것이다.

ㄹ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⑥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번

② ⑥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O)

→ '한테' 같은 조사는 문어체에 잘 쓰이지 않고 구어체에 주로 쓰인다. 논술 답안지에 '에게'라고 쓰지 않고 'A한테'라고 썼다고 생각해보자. 무언가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 표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한테'라는 조사가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18 #서술자의 개입 소개

(끼일 썬 들 入)

1인칭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다. 1인칭 서술자는 작중 인물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3인칭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서, 보통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영화의 카메라맨과 비슷하다.) 작품 밖의 서술자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 서술해주는 전지적 서술자라고 하더라도, 서술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작품 밖 서술자가 인격체로서 불쑥 나타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카메라맨이 영화 속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상황) **독자에게 말을 걸거나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며,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도 서술자의 '판단'이 나타나는 것은 '편집자적 논평'이라 할 수 있다.

tip : 개입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이다. 낄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었다는 뜻이다. 3인칭 서술자는 작품 속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마치 인물인 것처럼 끼어들었다고 해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23번

㉓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O)

→ 본디 3인칭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이 아닌데, 이처럼 인물처럼 행동하고 있으므로(말을 건넌)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략)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 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중략)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출처》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AB 38번

㉔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산천초목이 슬퍼한다’는 것은 인물의 생각이 아니다. 서술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작품 속 인물처럼 행동하는 것으로서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는 설의적 표현이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물의 생각이 아닌 서술자의 생각으로서 마땅히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납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중략)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치게 올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행A 31번

㉔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O)

→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다. 서술자의 생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한림의 멍청한 판단에 대한 서술자의 ‘안타깝’다는 감정이 드러나며(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매우 안타깝다), 이에 대해 누구나 안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서술자의 판단도 드러난다.

ㅍ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 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퍽 소묘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종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 .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험B 36번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O)

→ 서술자가 거의 신문 사설을 쓰고 있다. ‘도회의 소리’, ‘문명의 소리’가 요란해야 그 나라가 잘된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ㅍ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출처》 2008학년도 수능 27번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

→ ‘아아!’와 같은 감탄사는 서술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누구도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없다’는 판단도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다.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냐. (중략)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중략)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쥐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출처》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번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X)

→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와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에서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단정적인 서술자의 판단이 나타난다.

㉮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졌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53번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X)

→ ‘어찌 무엇 하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은 전형적인 서술자의 개입이다.

㉮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웁니다. 형님 전에 비웁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출처》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A 40번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O)

→ 밑줄 친 ‘놀부 놈의 거동보소’는 독자에게 말을 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며, 이 중에서도 ‘놀부 놈’이라는 표현에는 놀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다.

18-1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란 용어는 수능 선지에 활용된 바는 있지만 해당 선택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마땅히 보일 만한 사례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서술자의 서술은 편집자적 논평이 될 수 없다는 참고 사례인데,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제시한다.

~P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출처》 2016학년도 수능B

㉠ ㉠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X)

→ ‘애걸하다’의 단어 뜻이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빌다.’이고, ‘애처롭다’는 ‘가엾고 불쌍하여 마음이 슬프다.’이므로 ‘슬프다’라는 서술자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의 서술을 읽고 서술자가 인격체로서 작품 속에 개입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다. 서술자가 뚜렷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이 ‘애걸하다’와 같은 감정이 포함된 어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물의 정서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없고, 감정이입이나 설의적 표현 등으로 서술자의 정서나 판단이 뚜렷이 드러나야만 편집자적 논평으로 인정될 수 있다.

19 #요약적 진술

요약한다는 것은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린다는 뜻이다. 요점이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독후감을 쓸 때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듯이, 굵직한 내용만 추려 압축한다는 뜻이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쉽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약적 진술'이 선지에 나타난 경우 참인 비율이 매우 높다.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숯제 나의 일은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함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뭘,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데,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흥,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히라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출처》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번

㉔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0)

→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형의 소설을 서술자가 직접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긴장’과 ‘비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어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소설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ㄷ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중략)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E]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옹고 그릇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출사 : 벼슬에 나아감.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 36번

㉓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E]에서 사신은 (국)순의 삶에 대한 평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㉔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 34번

㉔ ㉔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O) → 공부도 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에 대한 가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민익태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알,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시고로 원님이 상서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출처》 2015학년도 수능B 36번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

→ 고을의 이방 원통은 숙향이 옥에 갇힌 사유를 숙부인에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
[B] 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
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올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A 38번

②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

→ 초왕이 파죽지세로 장안으로 쳐들어오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A]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체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험A 32번 ([A]의 인물 제시 방식)

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O)

→ 동청의 삶의 내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증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 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 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출처》 2013학년도 수능 13번 ([A]에 대한 이해)

㉔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O)

→ ‘장 공이 뇌양에 ~ 떠나지 아니하더니’ 부분은 부인이 죽을 지경에 처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멧대거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졌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꼬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북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 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밝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뭘테?”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
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
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 이호철, 「큰 산」-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번

㉔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있다.